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
	배포일자	2023 9 1 () 총 3 회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 원재활용팀장 : 당사	오미애 ☎ 40-3571 ☎ 40-35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끌모아 태산, 버려지는 장난감 모아 모아 재활용 **-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 맞아, 유치원·어린이집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제15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9월 4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완구류는 대부분 복합재질로 이루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폐플라스틱 완구류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인천자원순환가게에서 플라스틱 폐완구류 유가 보상을 실시해 약 14톤을 회수했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0.6톤을 회수했다. 회수된 폐완구류 플라스틱으로 직원용 네임택을 만드는 등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캠페인 대상을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유아와 아동들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 모으기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재활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등 자원순환 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번에 모이는 폐완구류는 전문업체로 보내져 각종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추진하는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은 미래세대에게 자원순환에 대해 알려줄 좋은 기회”라며 “자원순환사회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우산·폐건전지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 재활용 활성화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겨 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폐우산 모으기 캠페인에는 시 공무원, 미추홀구 주민, 녹색나눔장터 등이 참가해 1,300여 개를 모았는데, 이들은 모두 머리끈 등으로 재활용됐다.

<이미지> 카드뉴스

유치원·어린이집 폐완구류 모으기 캠페인

참 여 대 상 인천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기 간 2023. 9. 4.(월) ~ 9. 8.(금)
운 영 시 간 13:00 ~ 17:00
모으는 대상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류
모으는 장소 인천남동체육관(남동구 소래로 500),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38)
 * 폐완구의 전지류(건전지)는 제거해 주세요.

수거 가능 완구(장난감)류 주요 예시

승용류



블록류(레고 등)



무기류



로봇류



플라스틱 인형류



기타 놀이 기구(오리엔탈 등)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032-440-3572